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키포프 회의 개최 -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 -
- MSCI·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투자자 체감도 제고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7.15(화) 정부서울청사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키포프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TF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고위급이 참석하였다.

*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는 美 MSCI, Inc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

** 참석기관 : 기재부(주재),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

이날 회의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수준, 시장규모 및 유동성 측면에서는 MSCI 선진시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시장접근성 제약을 이유로 MSCI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MSCI는 금년 6월 연례 평가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고,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MSCI는 향후 선진시장 재분류 논의를 위해 모든 시장접근성 제약의 해소, 개혁의 전면 시행,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2시까지 연장, 외국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주식통합계좌 도입,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 거래, 투자제도 및 시장 인프라 등 소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장, 학계,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해 나가기로 하면서, 제도개선 이후에도 시장 관행까지 변화되어 투자자들이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개선과제를 담은 종합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발표하기로 하였다. TF 논의 결과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바로바로 발표·시행함으로써 제도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MSCI 면담 및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서의 현지 IR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현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해외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지속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외환·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0bb@korea.kr)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책임자	팀 장	유재현 (02-759-5737)
		담당자	과 장	배석진 (sukjin87@bok.or.kr)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김용진 (neobud@fss.or.kr)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책임자	부 장	안일찬 (02-3774-8580)
		담당자	팀 장	주건일 (gijoo@krx.co.kr)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청산결제부	책임자	부 장	김진택 (051-519-1710)
		담당자	팀 장	최종현 (cjh78@ksd.or.kr)